

退村의 方法은 一定한 對象을 熟視한 데서도 왔다 할 것이나 또한 한가지는 그 繪畫의 場이 傳統的인 院體畫의 模倣이나 野逸의 文人 士大夫 畫를 憧憬하는데 있지 않았고 따라서 韓國의 農村의 風情과 그 產業的인 底邊을 場으로 發掘한 데서 얻은 方法일 것이다. 그는 壬辰亂後 얼마 안 되는 時期에 있던 사람이고 亂後에는 畫界도 沈滯하였고 金明國 같은 北 畫系作家가 活躍하던 때였으나 李朝 繪畫의 全般的인 風潮가 自體內에서 發生消長한 것이 아니라 外來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大部分의 畫家들은 力不及으로 拙劣 形式上의 模倣을 계속한 데 대하여는 그 時期의 前後를 云謂할 것도 없을 것이다. 오직 謙齋의 山水만을 東國眞景이라 激讚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粉本의 模倣一色으로 始終했을까 하는 反問을 던진다. 또 清朝 畫家 孟永光 한 사람의 來朝에 의하여 李朝 畫界가 크게 影響되었다는 것으로 這問의 貧困狀態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金植의 경우에도 「倣閣立德筆意」라 題할 만큼 臨古, 積學했음은 알 수가 있겠으나 그의 그림은 模倣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前記한 그의 場에서 얻은 鄉土와 產業 그리고 近代의 人意識의 型에 의하여 깊고 어두운 데서 發色하게 된 獨自의 造形이라 할 것이다.

### 八公山頂의 石佛 兩軀

鄭 永 鎬

桐華寺를 中心하여 屏風처럼 둘러져 있는 뒷편 八公山 頂脈 東西二處에 各一軀의 佛像이 遺存하고 있어 一九五九年 이를 調査한 바 있기에 紹介하려 한다.

#### 一、冠峰 石佛坐像

俗稱「갓바위」라고 하는 冠峰을 目的으로 하여 地藏寺(註)에서 東北方으로 約一時間半 山峰을 向해 올라가면 全面花崗岩인 冠峰主峰에 다른다. 北西便의 印峰, 露積峰과 같이 險峻한 이 冠峰은 海拔 八五〇m의 高

峰으로 眼下에 諸峰을 굽어볼 수 있다. 이 頂上에 全高約四m의 坐佛을 花崗岩一石으로 圓刻하여 놓았는데 矩形의 座石도 同一石이고 身部의 衣花文이 座臺石 全面을 덮고 있다. 結跏趺坐한 佛像의 두 손은 觸地降魔印을 結하였고 通肩한 法衣는 流麗한 衣文으로 두 팔을 거쳐 兩膝을 덮었으며 胸前에는 裙衣의 帶紐가 보인다.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머리는 剃髮하였고 肉髻는 적은 편이다. 肩間에 큼직한 白毫가 있으며 眉目이 秀麗하고 두 볼이 豊美하여 굳게 닫은 口唇과 길게 늘어진 兩耳로 顔容이 尊嚴하다. 머리 위에는 厚一五cm의 平薄한 自然石一枚를「갓」모양으로 다듬어서 肉髻위에 올려놓았는데 三瓣形이고 下面에는 圓座를 陰刻하여 肉髻와 맞게 하였고 上面中央에는 같은 式의 圓座를 陽刻하고 그 周邊에 花瓣을 彫刻하였으나 磨滅이 極甚하다. 아마도 「갓바위」라는 俗名이 여기에서 由來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것은 佛像造成 當初의 것이 아니며 佛像과 石質은 同一한데 그 彫法이나 全體均衡等으로 미루어 보아 그 後代에 올려 놓은 듯하다.

八公山頂의 石佛 兩軀 位置圖



尊容의 優麗함이나 胴體의 整美함에 比하여 下部의 衣褶이 纖弱함을 느끼게 하나 以上の 諸造形과 彫刻의 技法으로 보아 新羅中期以後의 優作으로 推定되었다. 顔容과 全體가 完全한 佛像이나 右膝側面 一部가 떨어져 있고 또 下部數處에 龜裂이 있어 앞으로의 保存對策이 必要하다.

(註) 本誌第一卷第一號에 紹介되었음

#### 二、主峰 磨崖石佛立像

念佛庵(註)에서 正北으로 約一時間 올라가면 八公山 主峰의 奇巖頂上에서 若干 낮은 西便 草原地에는 巨大한 花崗岩一面에 거의 圓刻에 가까운 佛像一軀를 浮刻하였다. 總高約六m의 正面直立한 佛像으로 正西



다. 肢體가 肥大한 便이며 直立한 두 발끝은 露出되었고 발가락의 彫刻도 뚜렷하다. 法衣는 通肩이고 衣文은 雄健한데 두 팔을 거쳐 兩側面으로 벌어졌으며 그 사이 前面에는 袈裟가 걸쳐 있다. 右腕은 안쪽으로 누르며 左手는 胸前에 들어서 長指를 拇指에 꾸부러 持物이 있는 듯하나 確實치 않고 背光은 右側에 頭光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確然치 않다. 手, 足 等に 部分的인 畸形的 彫法을 보이니 巨大한 立佛에 잘 調和되어 있어 衣褶이나 恩威있는 尊容 및 그 手法으로 미루어 보아 前代의 冠峰의 坐佛과 同代的 것으로 推定되었다. 保存은 良好한 便이나 台石이 強固치 못하여 이에 對한 앞으로의 對策이 重要할 것이다.



向하였다. 머리는 削髮하고 肉髻는 앞은 便이다. 肩間에는 白毫가 없고 두 볼은 豊美하여 口唇에 若干의 微笑를 지은 것과 잘 調和되어 顔容에 慈悲가 넘친다. 兩耳는 길게 내려졌고 목이 바타서 三道가 뚜렷하지 못하

以上 兩佛은 共히 傑作品으로서 各其 東과 西를 向하였는바 그 位置를 볼 때 雲上界에서 俗界의 衆生을 굽어보고 있는 듯한 眺望이 絶佳한 山頂을 擇한 新羅人의 叡智에 感嘆하였다.

(註) 本誌 第二卷 第二號에 紹介되었음

三、 이제까지 八公山의 佛蹟을 本紙에 連載 ① 하여 數個處를 紹介하였는바 이 外에도 內院庵 ② 에 羅末作品으로 推定되는 拜禮石 一石이 良好하게 保存하였고 또 以外 各處에도 許多한 遺蹟 遺物이 있었으며 山峰 數個處에 石塔材 등이 倒壞되었었다. 그러나 이것은 筆者의 初踏에서 發見된 것을 列擧한 것 뿐이니 앞으로의 철저한 再調가 더욱 期待되는 바이다.

註 ① 本誌 自第一卷 第五號 至第二卷 第三號에 連載

② 桐華寺에 屬한 庵子로서 桐華寺에서 約一時間 八公山主峰을 向하여 올라간 곳에 있다.

### 牙山里 所在 石塔 및 石佛像

鄭 明 鎬

忠南 牙山郡 靈仁面 牙山里 邑南南東約六〇〇m되는 靈仁山支脈下에 鄉校가 있고 그 左右에 峽谷이 있어 各各 寺址가 있다. 左便 溪谷에는 北廣하고 三面이 山으로 둘러 있는 地帶에 新寺인 觀音寺境內에 三層石塔 一基와 如來像 및 高麗代의 礎石이 있고, 또 右便溪谷의 寺址역시 北廣한 데 露盤 及 覆鉢을 兼備한 五層石塔과 一軀의 佛像이 遺存한다. 이 두 寺址에 對한 由來는 傳하여 있지 않으나 東國輿地勝覽 牙山縣 佛宇條에 보이는 諸寺刹名中 現存하여 있는 刹名은 오직 神心寺(考古美術 第二卷 一號) 뿐이며 其他 刹名은 모두 廢寺된 것을 보면 勝覽編纂時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前者 觀音寺는 數年前 僧侶 林茂가 再建할 때 불친 寺名으로 原寺名과는 아무 關聯이 없다. 이 塔은 倒壞된 것을 現 大雄殿앞에